“한국의 전통문화 ‘인경’〈印經〉 우리 곁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 11월 11일 송광사 인경작업 현장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변영재 인경(印經)장이 1781년 제작된 〈염불왕생첩경도〉를 인경하고 있다. 이 인경본은 책자로 만들어져 문화재청과 송광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 1질씩 자료로 소장하게 된다.



인경한 계초심학인문언해 송광사판을 말리고 있다.



송연묵을 바른 경판에 닥나무 한지를 올리고 마릎으로 문지르고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니이 화엄전에서 경판을 꺼내고 있다.

꼼꼼히 먹물을 바른 경판에 한지가 올라간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릎으로 그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 한지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인경(印經) 작업이다. 인출(印出)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업은 박물관에 유물로만 남아 있는 경판이 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1월 11일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일제시대 이후 최초로 공식 목판 인경작업을 진행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14년부터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사료가치가 높은 목판을 선별해 화엄사와 대흥사 송광사의 총 20종 615판에 대한 인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팔만대장경과 직지 등 세계사에 유래없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는 사찰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큰 사찰에서는 경전을 쓰고, 새기고, 인쇄했으며 스님들은 역경, 조각, 인쇄의 전문가였다. 하지만 활자의 발달로 인쇄문화가 변화하며 사찰에서조차도 인경문화가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인경작업은 잊혀져 간 우리의 전통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인경작업이 진행된 송광사는 해인사 다음으로 많은 불교경판을 소장한 사찰로 그동안 인경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판 보존 · 관리 작업과 병행

전통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작업이기에 인경작업은 정성을 다해 이뤄졌다. 먼저 송광사가 소장한 경판을 인경장소로 반출하는 작업부터 진행됐다.

다른 경판과 달리 불교경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있다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송광사 도감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의 손에 1641년 건립된 장경각 화엄전 문이 열렸다. 화엄전에 보관된 〈화엄경〉 등 경판들은 국보 제314호 화엄탱화와 함께 보관돼 그 가치를 가늠케 했다. 이들 경판에는 빼곡히 이름표가 붙여 있었다. 2014년 진행된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목판일제조사 결과물이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일제조사를 하며 미생물 번식, 온습도 기록과 같은 보존환경 점검과 함께 경판 관리작업 또한 함께 진행했다.

불교계 · 정부 전통 살리기 나서

일제시대 이후 최초 공식 ‘인경’

17세기 전 경판 20종 615판 시행

후대에 과거 · 현재 문화 전해

국내 유일 인경장, 최고 먹 · 한지 사용

인경 매뉴얼화, 전체 사찰 보급 추진

리송재 팀장은 “향후 목판 판각을 후원한 이들과 장인 집단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서문과 발문 해제, 정밀 디지털 이미지 주축 등의 후속작업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차곡히 쌓여 보존된 경판들은 후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천년의 지혜를 다시 전하고 있었다.

인경문화 선례 · 기준점 만들어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에서는 미리 옮겨진 경판들의 인경작업이 한창이었다. 인경을 진행하고 있는 이는 50년 동안 사찰의 불교경판을 인경해 온 변영재(67) 인경장. 인경장은 중요무형문화재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 맥조차 잇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변 인경장은 1965년 해인사에서 비공식으로 진행한 팔만대장경 인경에 참여한 당시 인경장 24인 중 유일하게 남은 이였다.

변영재 인경장은 먹물을 수백년 묵은 나무경판에 바르고 닥종이 한지에 찍어냈다. 인경작업에는 소나무 재로 만든 국내 최고의 먹인 송연묵과 문경의 닥나무 산지에서 공수한 전통한지가 사용됐다. 솔도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렵을 사용했다. 한켠에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직원이 경판이 상하지 않게 소금을 먹인 먹물을 초벌로 바르고 있었다.

변 인경장은 “예전에는 사찰에서 스님들도 인경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인경하시는 분이나 배우려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물관 한켠에는 인경을 마친 한지가 소복히 쌓여있었다. 이는 1577년 만들어진 〈계초심학인문언해〉(誡初心學人文諺解) 송광사판이었다. 이 인경본은 전문제작소로 보내 책자로 만들어져 문화재청과 송광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 1질씩 자료로 소장하게 된다.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인경을 통해 육안이나 사진으로 보지 못하는 불교경판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대에 전할 문화가치를 현대에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통방식에 따라 각 사찰 경판에 가장 적합한 전통 인출기법을 찾고 그 가치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경은 경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



“인경은 경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경판을 단순한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 하나에 담긴 지닌 의미를 되살리고자 함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안 스님〈사진〉은 “사찰이 경판을 보관한 내역을 보아도 그 사찰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인경은 교육과 수행 등 불교문화의 핵심인 경판의 본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현재 디지털기술로 3D사진 촬영 등으로 자료를 남기지만 인경만큼 경판이 지닌 정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된 인경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며 연구소는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런 취지에서 경판의 공개를 꺼리는 개별 사찰들의 협조를 얻어냈다. 여기에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년 넘게 한지와 먹 등 재료의 품질에서부터 두께, 농도, 작업속도 등도 연구했다.

스님은 끝으로 “경판은 판 하나 하나에 가르침을 담은 신앙의 대상이자 선지식들이 남긴 지혜”라며 “대장경을 비롯한 문화재를 단순히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야 할지 후손들에게 방향과 방법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시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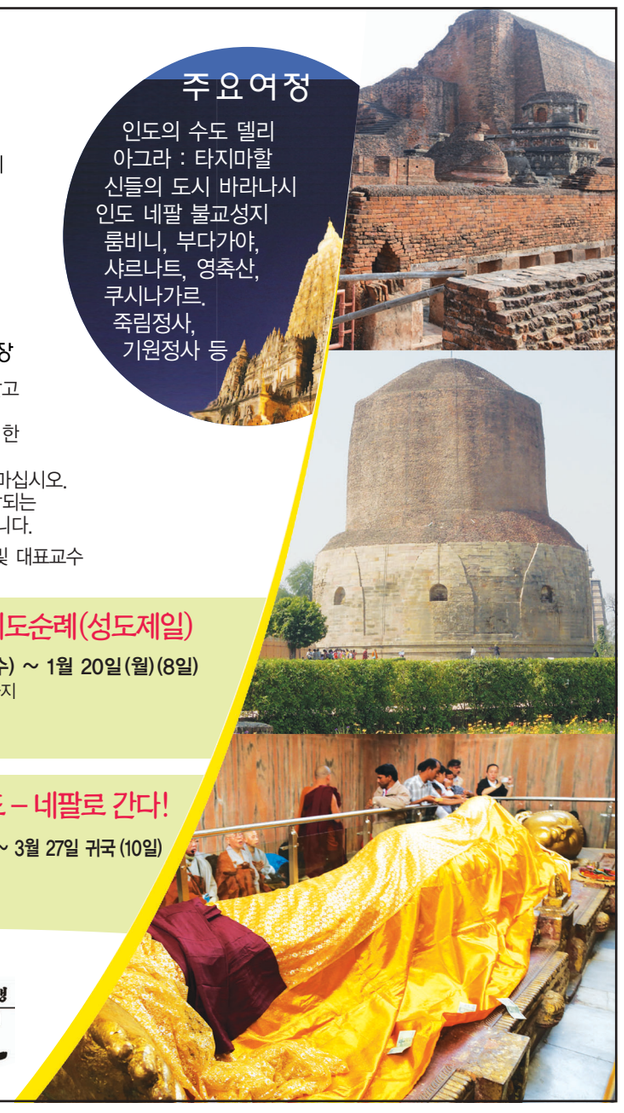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불타보헤미안 붓고 성지순례 전문 여행 BUDDHA BOHEMIAN